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7월 16일(목)

#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Beige Book, 미 경제 완만한 확장세 지속
- 2)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, 한달만에 하락세

#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중국 상반기 GDP 전년比 7.0% 성장, “경제지표 안정속 호전”
- 2) 글로벌 패션 업체들, 이슬람 여성 소비력 주목

#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뜨거운 스타트업 투자 열기, 2분기에만 22조원 육박
- 2) 스타벅스, 내년 아프리카에 1호점 오픈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Beige Book, 미 경제 완만한 확장세 지속

- 연준은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경제동향 보고서 Beige Book에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 경제가 일부는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부에서는 강달러로 어려움을 겪었다 발표
  - 이는 그리스 위기와 중국 증시 폭락, 경제둔화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연준의 분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줌
- 이번 Beige Book은 28~29일 열리는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FOMC 회의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됨
- 유가 하락에 힘입어 거의 전지역에서 자동차 판매, 주택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에서는 여행업도 활기를 보임
- 반면, 연준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물가상승률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, 임금 상승 압력도 완만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음

### 2)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, 한달만에 하락세

- 지난 16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 11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수정치보다 1만5천 건 하락한 28만1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
  -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약 한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, 앞서 시장이

내 놓은 전망치 28만 5천 건보다 하회하는 수치

- 고용시장 회복 기준점으로 판단되는 30만 건을 19주째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긴 추세로 그만큼 미국 고용시장 강세가 뚜렷하다는 신호로 인식
  - TD시큐리티의 제나디 골드버그 미국담당 투자전략가는 올해 지표는 적어도 해고 측면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
- 한편, 추세를 나타내는 최근 4주간 평균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8만 5000건을 기록해 전주 27만 9250건 보다 다소 상승했으며 4일 기준 실업수당 연속 수급 신청건수는 21만 5000건으로 전망치 230만건을 하회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중국 상반기 GDP 전년比 7.0%성장, “경제지표 안정속 호전”

-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(GDP)이 29조6868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.0% 성장했고, 2분기 GDP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.0% 성장했다고 발표
  - 2분기 GDP의 경우 시장 전망치인 6.8% ~6.9%를 상회했으며 올해 1분기와는 같은 수치
- 통계국은 국무원의 다양한 정책 조치에 힘입어 2분기 주요 지표는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기초를 더욱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
- 한편, 산업분류별로 보면 올 상반기 중국의 1차 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

비교해 2조255억 위안으로 3.5%성장, 2차 산업 생산액은 12조9648억 위안으로 6.1% 성장, 3차 산업 생산액은 14조6965억 위안으로 8.4% 성장해 2·3차 산업이 성장률을 견인

## 2) 글로벌 패션 업체들, 이슬람 여성 소비력 주목

- 세계 패션 업체들이 소비 잠재력이 크고 인구도 많은 이슬람인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추세
- 지난 2013년 세계 이슬람인들이 의류와 신발 구입에 2천6백6십억달러를 사용했으며 이는 이탈리아와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규모로 나타남
  - 앞으로 이슬람인들의 의류 및 신발 소비는 오는 2019년 4천8백4십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따라서 업체들은 이슬람인들, 특히 여성을 겨냥한 의류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라마단에 이슬람인들의 소비가 늘며 성탄절과 유대인 명절 하누카와 함께 주요 마케팅 시기로 인식하기 시작
- 한 전문가는 업체들이 중동 지역에서만 이슬람 디자인을 마케팅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도 판매가 돼야하나 아직도 소비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
- 반면, 다른 전문가는 5년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슬람 패션을 업체들이 앞으로 서방 국가에서도 마케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뜨거운 스타트업 투자 열기, 2분기에만 22조원 육박

- 지난 15일 WSJ은 올해 2분기 스타트업(신생기업)으로 흘러들어간 투자자금은 과거 닷컴 열풍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도
  - 다투존스 벤처소스는 올해 2분기 총 벤처 투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% 증가한 약 191억9천만 달러(약22조243억원)를 기록했다고 발표, 이는 지난 2000년 4분기 197억 2천만달러(약22조6326억원)에 근접한 규모
- 반면 자금 조달건수는 2000년 4분기 1309건에 크게 못 미치는 1034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
  - WSJ는 이는 곧 대규모 자금 조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우버테크놀로지나 에어비앤비(Airbnb)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인기를 끌면서 뮤추얼펀드 쪽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
- 한편, 닷컴 열풍 당시 투자를 주도했던 벤처펀드는 그때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스케일벤처파트너스의 케이트 미첼 파트너변호사는 사업을 모방하는 회사가 훨씬 적다는 점에서 닷컴 시기보다 현재의 벤처투자가 더 건강하다고 진단
  - 반면 뉴엔터프라이즈어소시에이츠의 스콧 샌델 총괄이사는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속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

## 2) 스타벅스, 내년 아프리카에 1호점 오픈

- 지난 14일 스타벅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업체인 Taste Holdings와 가맹점 영업권 계약을 맺고 내년 중반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첫 매장을 열기로 함
  - 스타벅스는 그동안 에티오피아, 르완다, 탄자니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커피 원두를 공급받았지만 정작 아프리카에는 한곳의 매장도 없었음

- o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프리미엄 커피 수요는 5% 가량 증가
  - 아프리카 대륙은 5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10억명
  -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는데다 20-30대 젊은층이 두터워 커피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게 스타벅스의 분석
- o 한편, 스타벅스는 현재 세계 66개국에 2만2천개이상의 매장을 운영